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국방 NCW포럼 워크숍 축사

(2017. 11. 29. 수)

합동참모본부

‘2017년 국방 NCW포럼 워크숍’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NCW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비롯한
국내·외의 산·학·연 NCW 전문가 분들이
모두 참가하는 이 뜻깊은 자리가
합동작전 발전을 위해 마련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NCW 포럼 워크숍은 해를 더해 갈수록
NCW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 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워크숍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 역시
의미 있는 연구 산물과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게 할 NCW 발전에 있어
토대를 든든하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및 참석자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는 가운데
군은 국민들로부터 철통같은 대비태세와 함께,

새로운 강군 건설을 위한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 추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한
전쟁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합동성에 기반한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을 발전시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 구조 및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지상·해상·공중·우주·
사이버 공간 개념에서의 합동성을 넘어서
연합자산과 정부 및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자산 등을 모두 통합해 활용하는
합동성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NCW 기반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전에서
정보자산에 의한 징후감시·정보획득으로
부터 시작하여, 작전상황에 부합한
적절한 대응전력 투입 및 자산운용 등,

하드웨어 측면의 지휘통제체계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용능력 완비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은
전승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이는 곧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개념입니다.

또한 합동전장 속에서 각 군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합동성 강화와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태세 구축은
향후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前 국방부장관이신
김태영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국방 NCW 포럼에서
이번에 '합동작전'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강군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합동성 강화에 대한
지혜와 방향이 제시되는
국방 NCW포럼 워크숍 개최를 감사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